



2009 세계 천문의 해

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

UN지정

“별에 눈을 뜨다”

2009년은 UN이 선포한 2009 세계 천문의 해.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우주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다.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에서는 교육, 문화, 행사, 미디어, 학술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해 크고 작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. 2009년 초, 어떤 일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미리 엿보기로 하자.

새해 해맞이 행사 : 2009 세계천문의해 한국조직위원회는 2009년



1월 1일에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“2009 세계천문의해 해오름 공개관측행사”를 개최한다. 이날 소형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인터넷 (www.astronomy2009.kr)에 새해 첫 일출을 생중계하는 한편, 네이버와 공동으로 태양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. 또한 정오에는 국제 태양관측 캠페인에 참가해 해운대를 찾은 일반인들에게 태양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며, 이 캠페인에는 한국을 포함, 그리스, 이태리, 독일, 미국 등 31개국이 참가한다.

이외에 유네스코 대표부, 2009 국제우주대회 관계자 등 여섯 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. 한편, 1월 15일,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는 “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 선포식”이 열린다.

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 발행 : 2009년 1월 15일에는 우



정사업본부에서 “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” 2종을 발행한다. 우정사업본부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허블우주망원경이 촬영한 행성상성운과 나선은하,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함께 어우러진 디자인을 채택했다.

별이 흐르는 하늘 :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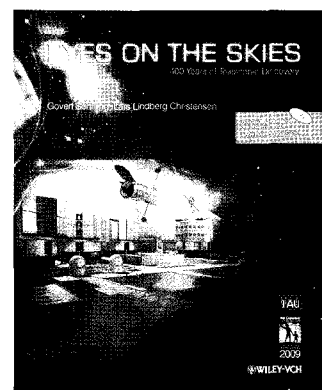
잠실 홈플러스 아트 갤러리에서 천체사진가 권오철씨의 “별이 흐르는 하늘” 전시회가 열린다. 이 전시회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제 공동과제의 하나인 ‘지구의 밤 (TWAN, The World at Night)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, ‘산과 별’, ‘바다와 별’, ‘천문대와 별’ 등을 주제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.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알리는 첫 TWAN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2009 세계 천문의 해 웹진 : 2009 세계 천문의 해 웹진

(www.astronomy2009.kr)이 1월 15일에 공식 오픈된다. ‘이야진 (iyazine)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웹진 사이트에는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새 소식, 국내에서 가 볼 만한 천문대. 인터뷰 기사,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만화, 천문현상, 천체사진 등 다양한 정보가 소개된다.

동계 교원천문연수 :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09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“동계 교원천문연수”가 열린다. 이 행사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제 공동과제인 ‘갈릴레오 교원연수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, 종래 교원천문연수의 틀을 벗고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다.

우주를 향한 눈 (Eyes on the Skies) : 2009년 초반, 조직위원



회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서적 “우주를 향한 눈 (Eyes on the Skies)” 번역판을 내놓는다. 이 책은 망원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 천문학 역사를 조명하며, 최신 천체사진과 함께 태양계로부터 먼 우주에 이르는 기나긴 여행을 소개한다.

2009 세계 천문의 해 개막식 : 2009년 1월 15일과 16일, 파리 유



네스코 본부에서는 “2009 세계 천문의 해 개막식” (<http://ama09.obsprm.fr/ama09/open.php>)이 열린다. 100여 개국으로부터 200명이 넘는 천문학 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며,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유명 천문학자들의 초청강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. 세계 각국의 초청인사 7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, 한국은 민영기 전 국립천문대장과 두 명의 천문학 전공 학생(연세대학교 홍승수, 경북대학교 고현지)

천문학 강연회 : 2009년 1년 동안 천문학 강연회가 열린다. 강연회

는 별 관측행사는 물론, 천체사진 전시회, 싸이-아트 전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며 태양, 태양계, 별, 은하와 우주, 외계행성, 외계지상체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담는다. 1~3월의 강연 주제는 “태양이라는 이름의 별”이다.